

광주FC 새 감독에 이정호...“내년 재승격 가즈아~”

제주 수석코치로 지난해 1부 승격 이뤘...광주 축구 신선한 바람 기대 부산 전신 대우서 ‘원클럽맨’ 활약 후 은퇴...2016년 광주 수석코치도

광주FC가 이정호(46) 전 수석코치를 사령탑으로 내세워 승격 도전에 나선다.

광주는 28일 “팀을 재정비하고 2022시즌 승격을 이끌어 줄 7대 감독에 이정호 제주 수석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1998년 현 부산아이파크의 전신인 대우로알스에서 데뷔한 뒤 2008년 현역 은퇴까지 ‘원클럽맨’으로 활약했다.

2011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감독으로 부임해 2013 U리그 중부리그(4권역)와 제9회 전국 1, 2학년 대학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프로로 무대를 옮긴 이정호 감독은 전남드래곤즈를 거쳐 2016년에는 광주FC 수석코치를 맡았다.

당시 광주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8위 달성에 기

여한 이정호 감독은 2018년 성남FC 그리고 2020년 제주에서 K리그1 승격을 이루기도 했다.

광주FC 관계자는 “이정호 감독은 현재 구단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과 2016-2017시즌을 함께했다. 그만큼 소통과 팀 정비에 능력을 보여 줄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지도자로 광주 축구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령탑으로 광주에 복귀해 ‘승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된 이정호 감독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2022시즌이다.

광주는 지난 2020시즌 K리그1 잔류라는 1차 목표를 이룬 데 이어 창단 처음으로 파이널 A그룹에 진출해 뜨거운 가을을 보냈다.

하지만 팀의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잔류를 이끌었던 박진섭 감독이 서울로 떠나면서 혼돈의 겨울을 보냈다.

그리고 금호고 출신 김호영 감독의 지휘로 2021시즌을 보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팀의 에이스였던 펠리페가 떠났고, 주축 선수들이 연달아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힘겨운 시즌이 전개됐다.

잘 싸우고도 아쉬운 패배들이 쌓여갔다. 뒷심 부족으로 인한 역전패와 제주전 억울한 몰수패 등으로 광주는 시즌 막판 ‘강등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리고 광주는 11월 27일 성남과의 홈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하면서, 강등이 확정됐다.

2년 만에 K리그2로 내려가게 된 광주는 새로운 사령탑을 앞세워 K리그1 복귀에 도전하게 한다.

2022시즌부터는 승강플레이오프가 확대되면서 최대 3개 팀이 승격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정호 감독에게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는 이정호 감독과 함께 2022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를 빠르게 구성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7대 사령탑을 맡게 된 이정호 감독.

<광주FC 제공>

‘광주FC의 미래’ 엄지성, 벤투호 첫 승선

“기회 놓치지 않겠다” 각오 다져 1월 아이슬란드·몰도바 친선경기

광주FC의 미래 엄지성이 ‘벤투호’에 처음 승선했다.

대한축구협회가 내년 1월 터키에서 열리는 아이슬란드, 몰도바와의 친선경기에 나설 국가대표 선수 26명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전원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이번 대표팀에는 광주 루키 엄지성도 포함됐다. 첫 국가대표 발탁이다.

광주 금호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바로 프로에 뛰어난 엄지성은 37경기에 출전해 4골 1도움을 기록했다.

엄지성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과감한 슈팅으로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면서, 올 시즌 신설된 ‘이탈의 영플레이어상’ 초대 수상자라도 이름을 올렸다.

눈에 띄는 활약으로 성공적인 데뷔시즌을 보낸 엄지성은 U23 대표팀에 이어 국가대표로도 선발돼 벤투 감독 앞에서 어필 무대를 갖게 됐다.

2002년생인 ‘딱내’ 엄지성은 이번 대표팀의 유일한 2000년대 선수이기도 하다. 대표팀의 ‘말형’ 이용(전북현대·DF)과는 16살 차이다.

엄지성은 “꿈이 이뤄진 기분이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열심히 잘 준비하다보니 좋은 기회가 찾아와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물론 최종 명단에 발탁돼 경기 출장과 함께 내 이상인 손흥민 선수와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뛰지 않더라도 대표팀 선배들의 골관리와 휴식 등 축구 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며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품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엄지성과 함께 김대원(강원·MF), 김진규(부산·MF)도 처음 A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은 “올 시즌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보여준 경기력, 우리 대표팀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는지를 검토해 명단을 꾸렸다”며 “보류건의 터키 전지훈련과 두 차례 평가전은 선수들의 면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새롭게 뻗은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대표팀의 전술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도 관찰할 예정이다”고



지난 8월 20일 대구FC와의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는 엄지성.

<광주FC 제공>

밝혔다.

대표팀은 1월 9일 소집돼 당일 터키로 출국할 예정이다. 벤투 감독과 포르투갈 코치진은 바로 터키 현지로 합류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7, 8차전을 대비해 이뤄지며 15일과 21일 각각 아이슬란드와 몰도바를 상대로 평가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팀은 24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 훈련을 소화한 뒤 25일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을 위해 레바논으로 이동한다.

레바논으로 합류하는 해외파 선수들이 확정되면, 명단에서 제외되는 선수들은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아이슬란드·몰도바전 명단
 ▲GK: 김승규(가시와 레이솔) 조현우(울산현대) 구성윤(김천상무) 송범근(전북현대) ▲DF: 김영관·김태환·홍철(이상 울산현대) 박지수·정승현(김천상무) 권경원(성남FC), 이용·김진수(이상 전북현대) 강상우(포항스틸러스) ▲MF: 엄지성(광주FC) 원동재·이동경·이동준(이상 울산현대) 백승호·송민규(이상 전북현대) 권창훈·이영재(이상 김천상무) 김대원(강원FC) 김진규(부산아이파크) ▲FW: 조규성(김천상무) 김건희(수원삼성) 조영욱(FC서울)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유스 출신 조성빈 등 신인 3명 영입

여승원·정우빈 U22 자원으로...젊은 피 수혈 전력 보강

전남드래곤즈가 ‘새로운 피’로 2022시즌 활력을 더한다.

전남은 28일 아주대 골키퍼 조성빈(20)을 우선지명, 명지대 수비수 여승원(21)과 중앙대 공격수 정우빈(20)을 자유 선발로 영입했다.



조성빈

여승원

정우빈

광양제철고 출신 조성빈은 193cm·86kg의 좋은 체격을 갖췄으며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유망주다.

우수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한 조성빈은 큰 키에도 순간적인 반응속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좋은 여승원(179cm·72kg)은 날카로운 크로스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와 빌드업시 연계에 강점을 보이는 왼발잡이 풀백이다.

서울 대동세무고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전남의 약점인 왼쪽 풀백 포지션에서 강점인 왼발을 바탕으로 좋은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용인 태성고-중앙대를 거친 정우빈(175cm·64kg)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1대1 돌파에서 강점을 보인다.

들과 이후 상황에 따른 크로스, 패스 등 재치있는 공격을 이끄는 그는 왼발잡이지만 오른발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만큼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전남은 올 시즌 U22 자원 부족으로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호진, 김영욱, 장성욱을 주로 U22 자원으로 활용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전력 이탈 시 전술 자체를 바꿔야 하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

전남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존 멤버 남윤재, 최성진과 함께 새로 영입한 신인 3명으로 U22 자원 풀을 넓혀, 다양한 전력 옵션을 마련할 방침이다. U22 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도 기대된다.

한편 전남은 본격적인 2022시즌 준비를 위해 1월 3일 동계훈련에 나설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스쿼시 오성학·송동주 ‘태극마크’

전남도청 양연수도 국가대표 발탁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 오성학과 송동주, 전남도청 양연수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한스쿼시연맹은 최근 청주 국제스쿼시경기장에서 2022 국가대표 선발전전을 갖고 최종 10명(남녀 각각 5명)을 발표했다.

오성학은 남자부에서 류한동(3-0), 지동현(3-1), 박종식(3-2), 박종명(3-2) 등을 꺾고 4승 3패를 기록했다. 오성학은 승점 12점으로 선발전 3위에 올라 첫 신인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대학부 최강자였던 오성학은 지난해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남자부는 유재진이 우선선발로 뽑혔고 이세현,

이민우, 박종명까지 총 5명이 내년에 국가대표로 활약한다.

여자부에서는 송동주가 송채원(3-1), 이승연(3-0), 장예원(3-0), 문혜연(3-2) 등을 물리치고, 승점 12점(3위)으로 태극마크를 따냈다. 2년 연속 성인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전남도청 양연수는 우선선발(2021년 랭킹포인트 1위)로 일찍이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이지현은 연맹 추천선발로, 임화영과 허민경이 선발전 1, 2위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송의중 박솔민(1년)은 청소년대표 U15에 합류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4관 해피 뉴 이어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9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7관 씨네캐플 해피 뉴 이어, 리틀 뱀파이어 매트릭스: 리저렉션
- 8관 씨네캐플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엔칸토: 마법의 세계,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